



광물사와 TiO₂ 안료

편집부

일본은 세라믹, 내화물 및 주물사의 원료로 사용되는 저어콘의 공급원과 이산화티타늄(TiO₂) 안료의 제조를 위한 주요 티타늄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광물사 및 그 정제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물사 수입의 대부분은 무역회사에 의해 관리되며 이 중 일부는 광물사 관리부를 분리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무역회사 중 하나가 이와타니 인터내셔널 주식회사(Iwatani International Corp.)이다. 비록 이 회사가 처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현재는 광물사와 내화물 분야가 이 회사 화학·세라믹부의 주력사업이다. Iwatani사는 광물사에 대하여 과거 30년 동안 호주 RGC Ltd.사와의 독점 중개 계약을 통해 자국 내 가장 큰 수입처가 되어왔다.

RGC사와 Westralian Sands Ltd.가 Iluka Resources Ltd.라는 회사명으로 합병됨에 따라 진정한 일본내 광물사 무역회사인 Iwatani사는 Iluka사의 광물사를 일본 내에 공급하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신 Iluka Resources사는 Westralian사의 무역 대표를 Rasa Corp.사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합병시기에 Iwatani사는 저어콘의 일년 교역량이 5만-6만톤에 달했으며 한창 전성

기에는 연간 10만톤에 달하는 광물사를 교역하기도 하였다. 1998년 12월에 Iluka사가 광물사의 공급에 손을 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Iwatani사는 몇몇 공급업체와 접촉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Richards Bay Minerals사와 일본내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저어콘의 유통에 대한 합의를 확보하였었다. Sumitomo Corp.사는 이에 앞서 RBM사의 광물사를 일본내에 공급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IM Nov. '99 참조).

Sumitomo사가 단지 연간 약 1만 톤의 저어콘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watani사는 자국 일본시장에서 연간 2만-3만 톤의 저어콘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watani사와 RGC사와의 교류는 다소 각별한 관계로서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무역업자들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례는 공급확보를 위한 연합 모험사업이나 거래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광물 및 내화광물에 대한 또 다른 중요 무역업체인 Nissho Iwai사는 서부 호주의 Yarloop, Sandalwood, Jangardup 지역에서 가행 되고 있는 RZM/Cable Sands Pty Ltd.의 100% 소유주이다. 호주 동해안에 대한 이 회사의 재원은 이미 고갈되었으나 RGM사는 약 2년 이내

에 광산을 재가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angardup산 티탄철석(illmenite)의 절반이상이 Iluka Resources Ltd.나 Tiwest Joing Venture사와 같은 합성 금홍석(rutile) 제조회사에 공급되었었다. 연간 45만 톤의 티탄철석 총생산량 중에서 연간 22만 톤이 일본시장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Ishihara Sangyo Kaisha (ISK) - 제 7 천국?

일본에는 7개의 TiO₂ 생산업체가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업체는 Ishihara Sangyo Kaisha Ltd.로서 전세계적으로 7번째의 TiO₂ 생산업체로 일본 내에 2곳 및 싱가포르에 1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ISK의 가장 큰 주주는 Mitsui & Co.사로서 비공식 투자를 통해 11.3%의 이익을 얻었다.

Mie Prefecture의 Yokkaichi에 있는 황산염 및 염화물 공장에서 나오는 ISK의 생산품 중 약 50%는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미국, 유럽 및 기타 아시아 시장에 수출된다. TiO₂의 산업분야는 최근 아시아지역 수요에 대한 엄청난

난 기대감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높아지는 수요에 대해 ISK는 싱가포르 공장의 생산량을 월 3,650톤에서 월 5,200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

일본의 TiO₂ 산업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업체들 간의 합병이 무르익기는 하였지만, 평생직장을 추구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회사들이 서구적인 합리적 접근방식을 마지못해 수용하게 만들어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본의 가격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의 최상 6개 생산업체 중 어느 곳도 일본 경영방식을 도입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ISK는 호주에서 광물사에 관한 사업을 펼칠 확고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자회사를 100% 소유한 ISK Minerals Pty Ltd는 광물사 광산과 Waroona의 선광공장, Picton의 건식 분리공장을 경영해 왔다. 이 회사는 Dardanup에서 새로운 광산경영 개발사업을 확장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1992년에 이 계획은 일단 보류되었고 이에 따라 Waroona에서의 광산개발은 중지되었으며 Picton의 건식 분리공장도 1993년에 가동이 멈춰졌다.

(Industrial Minerals, 1999, 자료정리 : 김건영)